광주, 미래차 거점 구축 시동…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진곡-부품생산, 빛그린-인증시험, 미래차-실증단지 삼각벨트 완성

시·유관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센서·제어·통신기술 연구개발 집중

광주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자동차 산업도시 조성 사업에 첫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21일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 김규남 한국알프스 대표이사,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이찬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덕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역 유관기관과 추진단을 구성하고, 소·부·장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R&D) 과제 수요조사 등 후속 작업에 주력해왔다.

이날 출범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추진단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광기술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6개의 유관기관, LG이노텍과 한국알프스 등 앵커기업, 70개의 협력기업과 568개의 지역 부품기업이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산업부는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국비지원과 전체사업을 총괄관리한다. 전담조직으로 총괄추진반, 사무국, 기업지원반이 구축돼 소부장 사업의 실행과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선 미래차 소부장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선순환 가치사슬(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광주시-앵커기업(LG이노텍·한국알프스)-유관기관', '광주시-대표 협력기업' 간 업무협약도 각각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은 "정부는 광주를 자율차 핵심 부품 허브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지센서 등 관련 기업을 광주에 집적시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 세계시장은 내연차에서 친환경·자율주행차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은 광주에 엄청난 기회"라면서 "이번 추진단 출범과 함께 신속히 산업기반 등을 확장해 누구도, 어느 지역도 선점하지 못한 미래차 산업을 선점해 국내 1위 자동차 도시로 올라서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이날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앵커기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 220만평(714만㎡)에 자율차부품 소부장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미래차 삼각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추진 분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육성 ▲자율차부품 연구개발(R&D) 및 기반구축 육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발전 ▲자율차부품 소부장 공급망 체계 구축 ▲다양한 기업지원 ▲이미 구축 운영 중인 특화단지와 협력 등이다.

부품기업이 집적화돼 있는 진곡산단은 자율차 부품산업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친환경차 인증시설과 완성차 공장이 있는 빛그린국가산단은 인증시험 특화단지로, 미래차국가산단은 설계 단계부터 자율차 실증단지로 특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자율차부품 연구개발(R&D) 및 기반 구축을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센서 분야인 라이다(현재 0%), 레이더(65%), 카메라(37%) 기술을 전반적으로 80%까지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

광주과기원법 과기방통위 통과…市, 내년 예산 반영 노력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AI영재고는 1038억원을 들여 광주시 일원에 건축면적 2만40㎡ 5개동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정원은 150명이며, AI 핵심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하는 차세대 AI 인재양성 특화학교다.

광주AI영재고는 12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2월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학교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돼 진행 중이다.

올해 기본설계가 수립되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 공사와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및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후 연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내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률안 개정에 힘써준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2027년 3월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막바지 점검

다음달 4~6일…개막일 평화콘서트

전남도가 21일 '2023 김대중 평화회의'(10월 4~6일)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화행사·학술행사·주한 외교사절 초청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우선, 전남도는 평화회의 기간인 10월 4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문화행사로 송가인, 남진, 안치환, 씨야 이보람 등이 출연하는 김대중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

5일부터 6일까지는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학술행사에는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인도)와 세계혁신대학 1위로 평가받는 미국 미네르바대학 마이크 매기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선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인류의 위기와 해법에 대해 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김대중 정신'을 함께 나누기 위해 스위스, 덴마크, 불가리아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도 학술행사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비전스쿨 청소년 특강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중장년·청년 '일상 돌봄' 다음달 개시

영양 관리·심리 지원 등 서비스

광주시는 21일 "다음 달부터 중장년,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다. 재가 돌봄, 가사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 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구청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6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방비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창업 아이디어 경진 '교복모아' 최우수

온라인에서 중고 교복을 거래하고, 다국적 디저트 및 음식·아시아 채소 등을 활용한 디저트 전문숍을 개업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는 한전KDN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2023년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중고 교복몰을 발표한 여수 '교복모아'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다국적 디저트 및 음식, 아시아 채소 등을 활용한 디저트 전문숍 아이디어를 제시한 담양 '담빛담다디'와 지역 테마 놀이교육용품으로 무안 '엄지교육', 화학제품을 쓰지 않은 노케미 라이프 실천 제품개발 및 판매 아이디어를 낸 목포 '데이지버블'이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